

사회적 맥락에 따른 겸손언행 의미분석

김은미¹⁾, 김기범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겸손한 언행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맥락을 구성하여, 각 상황에서의 겸손 행위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의 겸손언행 상황, 즉 개인의 성공, 집단 과업의 성공, 대인관계 맥락 세 가지(위사람, 친구, 아랫사람)를 애니메이션으로 스크립트화였고, 상황과 성별에 따른 겸손언행(전형성 2×2 요인방안, 관계성 3×2 요인방안)의 평가 차이를 분석하였다. 평가는 언행자의 솔직성, 동기, 마음, 가식성, 의례성, 예의성, 체면 및 관계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요인분석하여 형식성 차원과 관계성 차원에서의 상황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 겸손언행의 형식성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관계성 차원에서 집단 상황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맥락 상황에서는 친구 상황이 다른 두 상황(위사람과 아랫사람)보다 관계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손언행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속에서 상대방을 체면을 세우거나 예의를 차리며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적, 기능적 속성이 있는 규범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겸손언행은 숨은 의도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의를 갖춘 언행으로 관계 유지의 목적이 있는 언행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겸손, 사회적 맥락, 관계, 형식성, 문화

한국인의 대인관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한국인의 심정 중심적인 대인관계 모형(김경자, 한규석, 2000; 최상진, 2000a, 2000b; 최상진, 김기범, 1999; 최상진, 유승엽, 1994)과 상대의 위치와 입장을 고려해서 행위자가 행동하는 체면(최상진, 김기범, 2000; Choi & Kim, 2004; Choi & Lee, 2002)과 핑계(최상진, 임영식, 유승엽, 1991) 그리고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가식적인 한국인이라는 기존의 고찰들에 대한 반론으로써 의례적인 차원에서 대인관계 모형(최상진, 유승엽, 1994; 유승엽, 1995) 등에 관한 자료들이 모두 한국인의 대인관계 행위양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견지에서의 연구들로 사료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규범들을 따르는데, 이 관계적 행위가 규범에 의해서 마지못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진심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가 보인 객관적 행동의 특성보다는 상대가 자신과 상호교류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진심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Yang, 2000, 한규석, 2002에서 재인용).

동일한 행동을 하여도 그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행동인지, 상대방을 배려해서

1) 김은미,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MJ0102@paran.com

한 행동인지, 그리고 예의를 갖추기 위한 행동인지는 상황이나 관계 등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보여지는 행동이면에 숨겨져 있는 부언어적인 정보들이 행동의 진·위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경자, 한규석, 2000).

본 연구자들은 상대의 심정 배려와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에 따른 상대를 배려하는 의례성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행위방식을 겸손한 언행이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겸손언행의 표현 맥락에서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화와 사회적 규범 행동

어떤 사회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준들을 규범이라고 한다. 사회적 규범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에 의해 이해되어지고 법의 강제성이 없이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동을 강요하거나 안내하는 규칙과 기준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규범은 그 구성원들의 행동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광범위한 구성개념이다. Sherif(1936)는 규범을 사회적 행동 즉, 관습, 전통, 기준, 규칙, 가치, 의복, 그리고 개인간의 접촉의 결과로 표준화되어진 다양한 행위기준에 대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협의한 규칙으로 기술하였다(Cialdini, Kallgren, & Reno, 1991; Cialdini, Reno, & Kallgren, 1990). Pepitone(1976)은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적 행동이 무선적으로 관찰된 개인적인 특성이라기 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 그리고 다른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규범은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며,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간의 응집력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는 안내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즉, 규범적 영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의 규범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입장에서 겸손 언행은 우리의 사회구성원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사회적 규범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Sherif는 대부분의 경우 집단의 규범은 사회와 그 구성원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정 사회 규범적 행동은 행위자에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의 기대,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행위자가 발달시키는 기준과 같은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Blake & Davis, 1964; Pepitone, 1976).

사회적 규범이 사회체계 내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한가지 시각은 규범이 문화에 의해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적용되어진 행동에 대한 강제적인 규칙이라는 주장이다(Berger & Luckmann, 1966; Opp, 1982; Soloman, Greenberg, & Pyszczynski, 1991). Opp(1982)는 우리의 일상 생활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규범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으로나 대리적인 강화가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보상을 받는 행동을 통해 환기된다고 하였다(Berger & Luckmann, 1966). 그 행동은 보상의 힘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자주 행해지는 행동이 된다. 특정행동이 얼마나 자주 행해지는가는 규범을 상호 작용하게 되는 사회적 집단에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있으며, 집단의 응집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규범행동이 그 집단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집단으로부터의 이탈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민감한 한국 문화적 특성(조궁호, 2003; 최상진, 2000a; 한규석, 2002; Triandis, 1989, 1995)에서 살펴보면, 겸손 언행의 발생과 발달이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적절한 자기제시와 집단으로부터의 승인은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회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하게 동기화된다(Leong & Ward, 1999). 그렇게 행함으로써 자신이 더욱 성숙되고 잘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기능적 측면을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은 규범적인 행동이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다. 즉 규범은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Allison, 1992; Campbell, 1975) 나타났으며, 따라서 효과가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규범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Jabobs & Campbell, 1961; Schaller & Latane, 1996). Sherif(1936)는 규범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바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장은 진화론적인 입장으로 적응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Allison, 1992; Campbell, 1975; Schaller & Latane, 1996).

규범의 가장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는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범은 공유된 신념체계이며 개인이 간직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체계와 사회문화체계 둘 다에 대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Berger & Luckmann, 1966; Campbell, 1975; McKirnan, 1980; Pepitone, 1976). 또한 규범은 현실(reality)을 명확히 하는 것 이외에, 사회적 세계에서 기대되어지는 행동들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회에서 관계성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의 규범을 성문화하면 집단의 공식적인 규칙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규범은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집단성원들이 어느 규범을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구성원들이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어떤 기준에 합치시켜나간다. 규범은 단순한 외부적 제약만은 아니고, 내면화된 기준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확립된 규범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규범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규범이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규범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야 비로소 규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규범에는 평가의 의미가 있다. 즉, 규범을 어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간주되고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조궁호, 2003; 한규석, 최송현, 정욱, 배재창, 2004).

겸손언행의 동기, 기능 및 유형

겸손한 언행이 우리에게 가치로운 행동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행동규범의 근간이 되는 유학과 유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유교라는 것은 공자가 계승한 선왕들의 가르침, 즉 문화적 교육을 통해 덕화를 실현하려는 도덕적·정치적 사상체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닦는 후학들의 노력이 유학이다(금장태, 1996; 이승환, 1998).

이러한 환경에서의 인간관계 윤리는 일정한 공동체 안에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계층적 신분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관계 질서'의 확립에 그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타인을 배려한 행동과 자신의 주장보다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였으며, 윗사람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며 몸가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학에서는 인간을 그가 속한 사회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유기체적 존재로 파악한다.

유학에서 한 개인의 자아 정체감을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시킴으로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며, 관계유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것이 옳은 행동인 것으로 여기에 하였다(이승환, 1998; 조공호, 1998).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고, 타인에게 양보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겸손한 언행이 실천행동으로 주어졌다(김은미, 2001; 김의철, 2000; 조공호, 김소연, 1998; 최상진, 김시업, 김은미, 김기범, 2000). 따라서, 겸손한 언행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특성 속에서 겸손언행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겸손 언행의 의미는 행위자가 사회적 자극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했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인 규범행동으로서의 겸손언행은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행위에 대한 형식성이 있다. 또한 겸손언행은 사회적 상호작용속에서 행위자나 상대방에게 심리적 기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겸손한 언행은 행위자가 그 행동을 수용하는 행위 관찰자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상대방 또한 행위자를 상대방 자신을 배려하거나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호 의식하고 있다. 물론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라든가 의례적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겸손언행 자체가 사회규범적인 예의의 형태를 띤 행동이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김혜숙, 1995; 김혜숙, 유주란, 1995; 조공호, 김소연, 1998; Leong & Ward, 1999; Bond, Leung, & Wan, 1982).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인관계에서 겸손언행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욕구는 행동을 촉진하는 동기화의 과정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겸손언행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와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겸손언행, 즉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남의 체면을 세워주는 겸손언행은 상호의 자존심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최상진, 김기범, 2000). 그러나 자신의 성공이나 능력을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상대의 자존심을 꺾어 내리는 행동을 할 때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손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겸손언행의 이와 같은 긍정적, 부정적 기능과는 상관없이 겸손은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겸손 언행은 김혜숙(1995)의 연구결과와 같이, 개인적 수행에 대한 성취 귀인의 표현과 집단 수행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공적 표현 등 한국 문화에서 형식화되고 규범화된 정전성 겸손언행과, 겸손언행의 동기와 기능의 측면에서 겸손언행을 함으로써 결과되는 긍정적 기능은 행위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데, 이는 심리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거나 높이는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겸손언행은 자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와 겸손언행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자아존중감 상승 등의 긍정적 기능이 내재된 사회문화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1) 정전성(正典性) 겸손언행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사회적 행위의 표현은 의례적이고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욕구나 동기와는 상관없이 사회의 규범적 행동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성한기, 1996). 예를 들면, 방송인이 상을 받고 수상소감을 말하는 상황에서는 의례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덕분이었다고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러한 행동방식은 사회적으로 정해진 형태가 있는 형식성이 있는 행동이며, 의례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행동이다(최상진 등, 2000; Bruner, 1990). 이러한 의미에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겸손언행을 정전(正典)성 겸손언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상대고양 겸손언행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우선시하기도 본다(최상진, 2000a). 특히, 그 상대가 윗사람일 경우 상대의 연령과 경험을 고려한 언행을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상을 받게 되었을 때, 특히 상대가 함께 있을 때,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또는 부모님이 잘 키워주셔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겸손언행은 상대의 입장과 체면을 배려하여 언행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혜숙, 1994, 1995; 조궁호, 김소연, 1998 참조).

3) 자아고양 겸손언행

모든 인간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바람직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한다. 행위의 이면에 자기의 존중감이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가 내재하게 된다. 이 욕구나 동기는 바로 자신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의해 충족되거나 강화되는데,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규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바람직하게 제시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결국, 사회 규범적 행동은 행위자에게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기능을 갖게 되며, 행위자 자신의 자아도 고양이 되게 된다(김은미, 2001).

이러한 동기 및 기능이 내재된 사회규범적 겸손언행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Miller, 1999). 본 연구는 겸손언행의 형식성(가식성, 의례성), 동기(마음, 솔직함, 의도) 및 심리적 기능(체면지키기, 관계유지, 예의)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다르게 지각되고 평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시되었다.

겸손언행이 일어나는 맥락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맥락은 전형적 겸손언행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개인의 성취와 집단의 성취 상황으로 구분하여 각 각의 성취에 대한 겸손언행을 형식성, 동기와 기능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맥락은 겸손언행이 일어나는 대인관계에 변화를 주었는데, 상대가 윗사람, 친구 혹은 아랫사람일 때 행위자의 겸손언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집단 상황의 전형적 겸손언행과 다양한 관계 상황에서의 겸손언행을 형식성, 동기와 기능적 측면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상황을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구성하여 스크립트 상의 겸손 언행을 각 항목에 따라 관찰자의 입장에서 평

가하도록 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조사대상자: 서울에 위치한 종합대학 재학생 중 심리학 개론 수강생 200 명, 경기도의 대학 심리학 개론 수강생 100명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험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 149명(49.7%)과 여성 151명(50.3%) 이었다. 피험자의 연령 분포는 17세에서 33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22세였다.

연구설계: 설계는 피험자간 방안으로 2(개인-집단) \times 2(남녀) 요인설계와 3(세 가지 관계) \times 2(남녀) 요인설계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요인설계는 전형적 겸손언행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요인설계는 관계맥락 속의 겸손언행에 관한 것이다. 전형적 겸손상황에서는 개인의 성적 향상에 대한 겸손언행 상황과 집단으로 수행한 집단대항 경기에서 승리한 후 그 성공에 대한 겸손언행 상황으로 구성되었다. 세 가지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동일한 겸손 행동을 하지만, 겸손언행과 상대의 관계가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으로 변화를 두어 관계에 따른 겸손언행의 평가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도구 및 절차: 상황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였고, 반응은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피험자들은 간단하게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에 대한 기술을 한 후, 제시된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3-5분 간 본 후, 관찰자의 시각에서 각 평가 항목에 따라 Likert 5점 척도상에서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 범위 내에서 반응하도록 요구되었다.

1) 실험자극: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겸손한 언행에 대한 자극 제시는 애니메이션으로 스크립트화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은 문화적 자극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경험 및 해석을 분석하는 접근을 시도할 때, 특히 문화적으로 현저화, 보편화되었으며 실생활에서 이상의 경험으로 체험되는 문화현상에 대해서는 언어로 표현된 자극보다는 실물이나 장면 형태와 같은 실물 자극일수록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최상진, 한규석, 2000; Greenfield, 1997).

따라서, 문자로 된 시나리오로 구성하는 것에 비하여 상황을 좀더 분명하고 쉽게 피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과, 겸손한 언행을 표현하는 데는 언어적인 표현뿐 만 아니라 몸짓이나, 자세, 얼굴에서 보여지는 표정 등이 언행 못지 않게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였다.

겸손 언행에 대한 상황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은 박수동의 '박떡배와 오성과 한음'(2000)에서 추출하였다. 부언어적 행동에 대한 자료는 겸손언행에 대한 표상연구(김은미, 2001)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집한 겸손한 언행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겸손한 언행을 할 때 어떠한 몸짓이나 자세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오성과 한음'에서 비슷한 상황을 추려내었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은 유사한 몸짓이나 자세라고 추정되는 부분을 추려내어 따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자료를 7명의 대학원생에게 보여 겸손한 언행과 몸짓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평가하게 한 후, 그것을 토대로 하여 겸손 언행 상황을 찾았으며, 그것에 적절한 언어적 자료는 겸손한 행위를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애니메이션 자료를 다시 한 번 5명의 대학원생과 15명의 대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상황적 맥락이나 의미의 전달여부를 판단하게 하여 최종 애니메이션 자극을 결정하였다.

2) 전형적 겸손언행

전형적 겸손언행은 의례적인 겸손한 언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기존 연구(김은미, 2001; 김혜숙, 1995 등)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전형적 겸손언행이 이루어지는 스크립트 상황을 피험자에게 제시하였다. 전형성은 겸손언행이 정형화된 틀, 즉 형식성을 갖는 언행을 일컫는다. 전형적 겸손언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한 가지는 친구들 앞에서 성적이 좋게 나와 선생님께서부터 상장을 받고, 그 소감을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상황인데, 행위 당사자가 ‘자신이 좋은 성적이 나온 것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었다’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또 다른 상황은 마을 대회 경기에서 친구들과 단합하여 승리를 한 후, 승리의 소감을 말하는 TV인터뷰 상황이었다. 여기에서 팀의 대장은 ‘친구들이 힘을 모아 잘 싸운 것으로 승리하였다’고, 승리의 성과를 자신의 동료들에게 말하는 상황이었다.

3) 관계맥락(윗사람, 동료, 아랫사람)에 따른 겸손언행

겸손언행은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윗사람 앞에서 겸손한 언행을 하는 상황과, 친구나 동료 앞에서 겸손한 언행을 하는 상황과 후배나 동생 앞에서 겸손한 언행을 하는 상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상황에서의 변인은 겸손언행 관찰자의 지위와 연령이 언행 행위자보다 높은 교사로 한 상황과, 겸손언행 관찰자를 친구로 한 상황, 겸손언행 관찰자를 친구동생으로 한 상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선남비에 돈을 기부하고 난 후 선생님께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동생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을 때 각각의 상대에 대해 ‘별거 아니며, 많은 돈을 기부한 것도 아니라고’ 자신의 선행에 대해 겸손하게 행동하는 상황 자극을 제시하였다.

측정변인: 애니메이션을 읽고 그 상황에 대해 9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먼저 제시된 스크립트가 겸손한가에 대한 조작검증을 하기 위한 문항과, 나머지 8개 문항은 행동에 대한 평가 항목이었다.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한 언행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인가’, ‘솔직하게 표현한 행동인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행동인가’, ‘마음속에 어떤 동기나 숨은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인가’, ‘상대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한 행동인가’, ‘상대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인가’, ‘의례적으로 한 행동인가’, ‘가식적으로 한 행동인가’로 겸손한 행위를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 지를 질문하였다.

분석: 자료의 처리를 위해 사용한 통계처리 방법에는 빈도분석, 변량분석, Scheffe 사후검증, 요인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우선, 유형별 애니메이션 자료에 대해 각기 겸손 행동에 대한 조작검증이 이루어졌다. 전형적 의례성에서의 상황간의 차이와 관계맥락(윗사람, 친구, 아랫사람)에 따른 겸손언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하였다. 행위자에 대한 평가 문항들의 잠재적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작검증: 각 상황에서 조작되어 제시된 겸손언행이 겸손한 언행인가에 대한 조작검증을 실시하였다.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보고 난 후, 겸손언행자의 행위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물었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유형 내 상황별 평균을 보면 전형적 겸손 상황 중 개인 상황을 제외하고 모두 Likert 5점 척도 상에서 3점(중간이다)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상황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298) = 1.57, p < .05$). 본 연구가 실험연구이기 하지

만 전형적 유형과 관계 유형에서 각 맥락에 따른 겸손언행의 평가에서 차이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비교적 피험자들이 제시된 상황을 겸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의도대로 조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겸손 언행 조작 검증 결과

유형	전형성			관계	
	개인	집단	윗사람	친구	아랫사람
평균(표준편차)	2.95(1.04)	3.18(.89)	3.35(.89)	3.30(.86)	3.10(.93)

결 과

애니메이션 스크립트를 본 후 반응하는 평가항목(예의, 솔직함, 마음, 동기, 체면, 가식, 의례성)을 요인분석하였다. 각 평가 항목의 관계에 따라 잠재적 평가 차원을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평가 항목 7 문항을 Varimax 회전하여 eigen 값 1 이상과 scree 검증 결과를 토대로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에는 마음, 솔직함, 동기, 가식 및 의례성이 적재되었는데(eigen 값 3.22, 40.30 % 설명변량, $\alpha = .78$), 마음과 솔직함은 역의 부하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의 요인명은 ‘형식성’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에는 예의, 체면 및 관계 3문항이 추출되어(eigen 값 = 1.36, 16.82% 설명변량, $\alpha = .65$) ‘관계성’으로 명명하였다.

1. 전형적 겸손언행

전형적 겸손언행에 대한 개인, 집단 상황과 성별에 따른 두 종속변인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2의 각 상황별 평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황과 성별에 따른 형식성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겸손언행 모두 형식성 측면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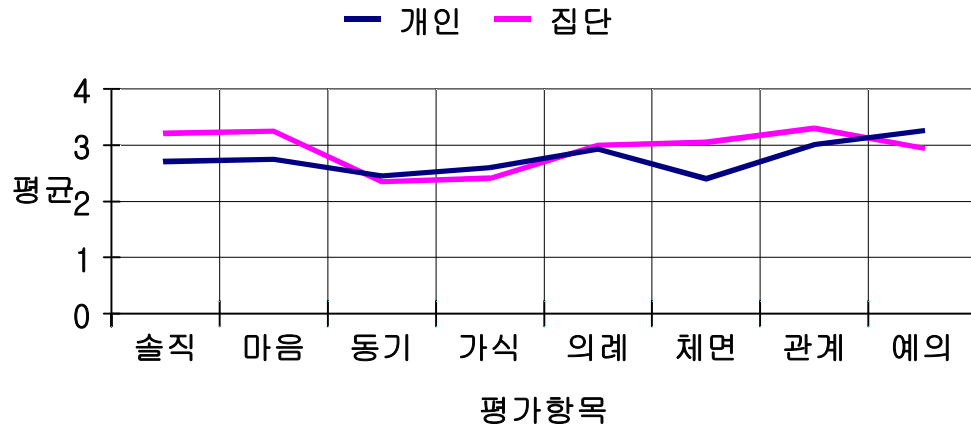
표 2. 전형적 겸손언행 상황의 형식성 차원 평균 및 표준편차

상 황	성 별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개인	남자	2.72	.96	30
	여자	2.56	.79	30
	총	2.64	.88	60
집단	남자	2.72	.82	29
	여자	2.54	.70	31
	총	2.62	.76	60

관계성 차원에서는 개인과 집단 상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1, 120) = 6.91, p < .01$), 개인의 성취에 대한 겸손언행($m = 2.70$) 보다 집단 승리에 대한 겸손언행($m = 3.12$) 이 관계성 차원에서 높게 나타나 집단 성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겸손하게 행동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혜숙(1994, 1995) 등의 한국 문화에서 집단자아 존중감이 개인자아 존중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고, 개인보

다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성한기, 2001; 최상진, 2000; 한규석, 2002; Kim & Kim, 1997; Triandis, 1995)을 반영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두 상황에서의 평가차이를 도식화 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 상황에서의 겸손언행이 솔직함이나 마음 및 상대방의 체면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황 항목	솔직	마음	동기	가식	의례	체면	관계	예의
개인	2.71	2.75	2.45	2.60	2.93	2.40	3.01	3.25
M(SD)	(1.15)	(1.01)	(1.06)	(1.04)	(1.13)	(.92)	(1.03)	(1.11)
집단	3.21	3.15	2.35	2.41	3.00	3.05	3.30	2.95
M(SD)	(.94)	(.97)	(.86)	(1.02)	(1.00)	(1.06)	(.88)	(1.03)

그림 1. 전형적 겸손언행의 평가

개인 상황에서의 겸손언행과, 집단 상황에서의 겸손언행의 항목별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그림 1 참조), 솔직하게 표현한 행동인가($F(1, 118) = 6.79, p < .05$)와 마음에서 우러나온($F(1, 118) = 4.85, p < .05$) 행동인가,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인가($F(1, 118) = 12.67, p < .01$)라는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성취에 대한 겸손언행보다 집단의 성공에 대한 겸손언행이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며,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또한 집단을 화합과 가치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관계맥락에 따른 겸손행동

겸손언행이 어떤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 하에, 윗사람, 친구 및 아랫사람으로 상황을 조작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형식성 차원에서 모든 관계 상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F(1, 180) = 6.06, p < .05$). 남성들($m = 2.63$)이 모든 상황에서 형식성을 여성($m = 2.38$)보다 높게 평가해 행위의 가식성과 의례성을 남성들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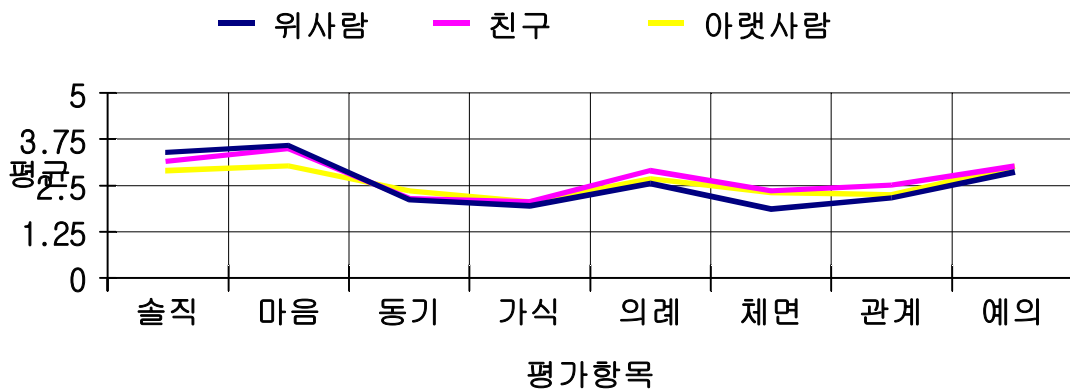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체면을 지키거나, 예의를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평가하는 관계성 차원에서는 상황 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2, 180) = 2.99, p < .05$), 친구 관계($m = 2.62$)가 아랫사람($m = 2.28$)과의 관계에서보다 보다 더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내재된 행동으로 평가하였다.

표 3. 관계맥락과 성별 관계성 차원 평균 및 표준편차

상 황	성 별	평 균	표준편차	사 례수
윗사람	남자	2.43	.65	30
	여자	2.43	.65	30
	총	2.43	.65	60
친구	남자	2.69	.83	30
	여자	2.56	.90	30
	총	2.62	.86	60
아랫사람	남자	2.32	.67	30
	여자	2.24	.83	30
	총	2.28	.75	60

각 항목별로 관계 맥락에 따른 차이를 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솔직하게 표현한 행동과 마음에서 우리나라서 하는 행동, 그리고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행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80) = 4.88, p < .01$).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솔직성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에서 우리나라서 하는 행동에서는 윗사람, 친구관계와 아랫 사람관계에서, 체면 세워주기 위한 겸손언행에서는 윗사람과 친구집단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윗사람과 친구 앞에서의 솔직하게, 윗사람과 친구 앞에서 마음에서 우리나라오게, 친구나 아랫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는 것으로 지각될 때 겸손한 언행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계	항목	솔직	마음	동기	가식	의례	체면	관계	예의
윗사람	평균	3.40	3.58	2.11	1.95	2.55	1.86	2.16	2.85
	(SD)	(.78)	(.69)	(.80)	(.72)	(.79)	(.70)	(.92)	(1.00)
친구	평균	3.16	3.50	2.15	2.06	2.90	2.35	2.51	3.01
	(SD)	(.94)	(.98)	(.95)	(.97)	(1.10)	(1.21)	(1.12)	(1.12)
아랫사람	평균	2.90	3.03	2.35	2.05	2.68	2.31	2.25	3.00
	(SD)	(.89)	(.93)	(1.07)	(.79)	(.94)	(1.01)	(1.06)	(1.07)

그림 2. 관계 맥락에서의 겸손언행에 대한 평가

흥미로운 것은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 체면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마음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친구 관계에서는 마음을 가장 높게, 동기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음과 예의를 높게, 관계와 체면을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윗사람이나 친구, 아랫사람 앞에서는 진심어린 행동할 때 겸손한 것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덟 개의 평가항목(솔직성, 마음, 동기, 가식성, 의례성, 체면, 관계, 예의)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겸손언행의 단일 평가 문항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마음, 관계, 동기, 예의, 솔직함이, 전형적 상황에서는 마음, 예의, 동기, 관계가, 관계맥락에서는 솔직, 관계, 동기, 예의가 유의미한 겸손함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분석에서 공통적인 것은 관계, 동기, 예의였는데, 동기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나 숨은 의도나 동기없이 행동할 때 겸손한 언행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형적 상황과 관계 맥락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어떤 언행이 겸손한 언행인가에 대한 판단은 그 행동이 마음에서 우리나라 것이어야하고,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어떤 숨은 동기나 의도가 없고, 예의를 차리는, 솔직한 것으로 지각될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설명력은 20%인 것으로 나타났고, 마음 변인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형성 상황에서도 마음, 예의, 동기, 관계 유지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설명력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전형적 겸손언행은 마음에서 비롯된 예의를 갖춘 언행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겸손언행에 회귀분석 결과

종류	변인	R	R ²	조정된 R ²	B	β	t
전체	마음	.29	.08	.08	.21	.22	3.41**
	관계	.36	.13	.13	.21	.26	4.52**
	동기	.42	.18	.17	-.22	-.23	-3.95**
	예의	.45	.20	.19	.18	.20	3.65**
	솔직	.47	.22	.20	.13	.14	2.08*
전형성	마음	.37	.14	.13	.33	.34	3.75**
	예의	.42	.18	.16	.21	.21	2.35*
	동기	.46	.21	.19	-.32	-.31	-2.98**
	관계	.50	.25	.22	.22	.23	2.41*
관계 맥락	솔직	.27	.07	.07	.26	.27	3.76**
	관계	.38	.14	.13	.22	.24	3.45**
	동기	.42	.17	.16	-.18	-.20	-2.72**
	예의	.45	.20	.19	.15	.18	2.62**

* $p < .05$, ** $p < .01$

관계맥락에서는 솔직성, 관계, 동기 및 예의가 예측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관계에서는 솔직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결손 예측인이고, 관계 유지가 중요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모든 문화는 그 문화 특수적인 생태적 환경과 철학, 역사와 제도 및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과 역사, 제도 및 관습에 따라 행위하게 된다(김의철, 2000; 조공호, 2003; 최상진, 1999, 2000a, 2000b; Bond, Leung, & Wan, 1982; Bruner, 1990; Vygotsky, 1978; Cole, 1996). 이러한 문화적 행위는 오랜 역사에 걸쳐 규범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된다. 심리학 분야에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문화 비교 연구가 시작된지도 40여 년이 되었는데, 대인 지각에서 행위에 대한 귀인 이론 중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문화 비교 연구는 비교적 많이 수행되어 왔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Matsumoto, 1996; Kashima & Triandis, 1986; Semin & Zwiern, 1997; Yamaguchi, 1988; Zuckerman, 1979). 특히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구 문화권과 동양 문화권에서 자기본위적 편향과 타인 본위적 편향 혹은 집단 본위적 편향으로 대비시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 타인이나 집단 본위적 편향이 결손언행으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결손언행이 문화적 행위 양식이자 사회 규범적 행위로 문화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특성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나 심리적 기능 측면에서는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행되었다. 다시 말해, 결손언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자기의 자존심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고자 하기 때문인데, 문화적 표현 형태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이러한 점들을 모두 분석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겸손언행을 보는 관찰자 시각에서 그러한 언행을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겸손언행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을 개인이나 집단의 성공에 대한 공적 표현의 전형적 차원과 윗사람, 친구 및 아랫사람과의 관계 맥락에 따른 평가에서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전형적 겸손언행은 형식성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집단 상황에서 겸손언행이 관계성 차원에서 높게 나타나, 집단 상황에서 겸손언행을 하는 것은 집단 성원과의 관계 유지 위해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관계 맥락에서도 친구 앞에서의 겸손언행이 관계성 차원에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아 집단과 친구 관계에서의 겸손언행은 상대방(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관계 유지가 주된 이유이고 목적이자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적 행위 양식으로서의 겸손언행이 관계 유지라는 동기적 측면과 겸손하게 행동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적 측면 모두 함유하고 있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검증 결과는 평가 항목을 예측인으로 하여 겸손한 언행인가에 대한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에서도 마음과 더불어 관계 유지가 중요한 예측인 것으로 나타나 위와 같은 추론에 뒷받침이 되었다. 전형성에서는 숨은 의도나 동기가 없는 언행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고 예의를 갖춘 행동으로 지각될 때 겸손한 언행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겸손언행은 관계 유지를 위한 언행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 맥락에서는 겸손한 언행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솔직해야 하고, 숨의 의도나 동기가 없어야 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행위 양식이라 해도 마음에서 비롯된 진솔한 행위이어야 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주화폐가 행위의 교환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며(최상진, 2000a), 한국인의 대인관계나 사회적 행동이 마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마음에 대한 해석이 행위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겸손언행은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행위 양식으로 형식성과 의례성 등 사회 구성원들간의 공유된 인지체계가 존재하고, 겸손언행을 하게 되는 중요한 목적은 관계 유지이며, 관계 유지는 겸손 언행을 강화하는 심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한 겸손언행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하고 진솔한 행위일 때 겸손한 언행으로 지각되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규범화된 형식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일 때 기능을 갖는 의미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겸손언행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 중 극히 제한된 상황에 근거한 자료를 분석했고, 관찰자 시각에서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겸손언행의 동기적 측면이나 개인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겸손 언행 상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언행의 동기적 측면, 언행의 사적, 공적 표현의 차이(김혜숙, 1995 참조), 관찰자-행위자 관점의 비교 및 문화 비교 연구 등을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경자, 한규석(2000). 심정대화의 특성: 심정표상과 심정대화의 경험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22.

- 김은미(2001). 겸손언행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기능적 이기성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의철(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1-24.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1), 103-116.
- 김혜숙(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9(1), 45-64.
- 김혜숙, 유주란(1995).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이 귀인자에 대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9(2), 51-68.
- 금장태(1996).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 박수동(2000). 박떡배와 오성과 한음. 서울: 도서출판 산하.
- 성한기(1996). 집단구성원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 규범의 영향: 집단극화의 동기적 기제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0(1), 99-114.
- 성한기(2001). 한국관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3), 33-48.
- 유승엽(1995). 한국인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의례성의 심리과정과 그 기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승환(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인문사회과학총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조공호(1998). 유학심리학. 서울: 나남출판
- 조공호(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조공호, 김소연(1998). 겸양 편향자의 선호 현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69-189.
- 최상진(1999). 서론. 최상진, 한덕웅, 조공호, 윤호균, 이수원 (공저). 동양심리학 (pp. 1 - 20). 서울: 지식산업사
- 최상진(2000a).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2000b). 한국 문화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지난 20여년 간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은 문화심리학적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 25-40.
- 최상진, 김기범(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상진, 김기범(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 김시업, 김은미, 김기범(2000). 한국 여성들의 사회 규범적 행위 양식에 대한 조망: 집단 고양 편향과 겸손 행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103-115.
- 최상진, 유승엽(1994). 한국인의 의례적 언행과 그 기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 369-385.
- 최상진, 임영식, 유승엽(1991). 핑계의 귀인/인식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초록, 339-410.
- 최상진, 한규석(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한규석(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규석, 최송현, 정욱, 배재창(2004). 한국사회에서의 사람 판단의 준거: 된 사람과 난 사람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23-39.

- Allison, P. D. (1992). The cultural evolution of beneficent norms. *Social Forces*, 71, 279-301.
- Berger, P. L., &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Garden City, NY: Doubleday.
- Blake, J., & Davis, K. (1964). Norms, values and sanctions. In R. E. L. Faris (Ed.), *Handbook of modern sociology* (pp. 456-484). Chicago: Rand McNally.
- Bond, M. H., Leung, K., & Wan, C. W. (1982). The social impact of self-effacing attributions: The Chinese ca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8, 157-166.
- Bruner, J. S. (1990). *Acts of meaning*.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D. T. (1975). On the conflicts between biological and social evolution and between psychology and moral tradition. *American psychologist*, 30, 1103-1126.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R. (1999). Casu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Choi, S. C., & Kim, K. (2004). Chemyeon: Social face in Korean culture. *Korea Journal*, 44(2), 30-51
- Choi, S. C., & Lee, S-J. (2002). Two component model of Chemyon-oriented behaviors: Constructive and defensive Chemy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3), 332-345.
- Cialdini, R. B., Kallgren, C. A., & Reno, R. R. (1991).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A theoretical refinement and reevaluation of the role of norms in human behavio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201-234.
- Cialdini, R. B., Reno, R. R., & Kallgren, C. A. (1990). A focus theory of normative conduct: Recycling the concept of norms to reduce littering in public pl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15-1026.
- Cole, M. (1996). *Cultural Psychology: A once and future disciplin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field, P. M. (1997). Culture as process: Empirical methods for cultural psychology. In J. W. Berry, Y. H. Poortinga, J. Pandey, P. R. Dasen, T. S. Saraswathi, M. H. Sef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II* (pp. 301-346). Boston: Allyn and Bacon.
- Jacobs, R. C., & Campbell, K. T. (1961). The perpetuation of an arbitrary tradition through several generations of a laboratory microcult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649-658.
- Kashima, Y., & Triandis, H. C. (1986). The self-serving bias in attribution as a coping strategy: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83-97.
- Kim, K., & Kim, U. (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ume 1*

- (pp. 247-259). Singapore: John Wiley & Sons.
- Leong, C. H. & Ward C. (1999). The Effects of Enhancing and Effacing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on Chinese Person Perceptions in Self and Group Referent Conditions. In T. Sugiman, M. Karasawa, J. H. Liu, & C. Ward.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Vol II* (pp. 75-85). Seoul: Kyoyook-Kwahak-Sa Publishing Company.
- Matsumoto, D. (1996). *Culture and psychology*. Alban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McKirnan, K. J. (1980). The identification of deviance: A conceptualization and initial test of a model of social norm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75-93.
- Miller, J. G. (1999). Cultural psychology: Implications for basic psychological theory. *Psychological Science, 10(2)*, 85-91.
- Opp, K. D. (1982). The evolutionary emergence of norm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39-149.
- Pepitone, A. (1976). Toward a normative and comparative biocultural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641-653.
- Schaller, M., & Latane, B. (1996). Dynamic social impact and the evolution of social representations: A natural history of stereotypes. *Journal of Communication, 46*, 64-71.
- Semin, G. R., & Zwier, S. M. (1997). Social cognition. In J. W. Berry, Y. H. Poortinga, J. Pandey, P. R. Dasen, T. S. Saraswathi,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2nd Ed.)* (pp. 51-75). Boston: Allyn and Bacon.
- Sherif, M.(1936). *The Psychology of social norms*. New York: Harper.
- Soloman S.,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91). A terror management theory of social behavior: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elf-esteem and cultural worldview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93-159.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ur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Yamaguchi, H. (1988). Effects of a actor's and observer's roles on causal attribution by Japanese subjects for success and failure in competitive situations. *Psychological Reports, 63*, 619-626.
- Zuckerman, M. (1979).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revisited, or the motivational bias is alive and well in attribu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47*, 245-287.

An Analysis of Meaning of Modesty Behavior in Various Social Context

Eun-mi Kim & Kibum Kim

Department of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Institute of Applied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 of modesty behavior in different contexts in Korean culture. A total of 300 subjects were participated at this study. Normative modesty situations are composed of two animations, which are the praise situation after getting a better grade ever than in school, and the interview situation after winning a prize. One is significant in frankly and showy modest, the other is significant in expressing frankly, modest filled with one's heart, and inside inducement. Three interpersonal situations where are diverse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 in modesty towards the old is different in good manners, modest with heart, and throwing the handkerchief. In friendship situation, it was revealed that it was important well-mannered, modest with minded, *Chemyon (social face)*, and maintaining a relation. In lower relationship, it was more important in modest with heart, *Chemyon*, and maintaining a relation. Accordingly, modesty behavior which is one of social normative actions, is perceived as modest with the heart in Korean culture.

Keywords: modesty, social context, relationship, formality, culture